

남도 단체 여행, 해남·완도가 뜬다

도 '남도여행 으뜸상품' 결과

3~7월 단체 177건 8823명

참여행 관광객 59.8% 늘어

도, 편중 완화 새 상품 개발키로

남도 단체 여행객들은 해남·완도 등 해양 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도탐사 1번지 강진과 담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전남도가 추진 중인 '남도여행 으뜸상품'의 운영 결과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3~7월) '남도여행 으뜸상품'을 이용한 단체 관광객은 177건, 8823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88명보다 60.8% 증가했다. 특히 참여행 관광객이 59.8% 늘었다.

'남도여행 으뜸상품'은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1박2일 이상 체류하고 숙박하는 여행상품을 공모해 선정한 것으로, 올 상반기는 힐링여행·남도별미·섬 등 10개 주제로 60개 상품을 지정했다. 전남도는 예산 1억3000만원을 편성해 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차량 임차비 1대당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즌별 방문 실적을 보면 전체 방문객 2만1363명 가운데 해남이 4156명으로 가장 많이 찾았다. 이어 완도(4036명), 순천(3885명), 여수(3875명), 장흥(1060명)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해남은 5계단(6~1위), 완도는 6계단(8~2위), 구례는 7계단(15~8위), 광양은 10계단(19~9위) 수직 상승했다.

반면 담양은 15계단(3~18위) 급락했다. 순천은 1위에서 3위로, 장흥은 2위에서 5



전남도가 추진 중인 '남도여행 으뜸상품'의 운영 결과, 여수 해양케이블카가 가장 즐겨 찾는 관광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여수 해양케이블카의 모습. <평주일보 자료사진>

위로, 강진은 4위에서 7위로 내려앉았다. 화순·영암·함평·진도는 단체 여행객이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관광지별로는 여수 해양케이블카를 3567명이 이용해 가장 인기가 높았다. 완도 청산도(2835명)와 보길도(2783명), 순천 순천만정원(2359명), 여수 오동도(2171명), 해남 대흥사·두륜산케이블카(1934명)와 땅끝전망대(1821명), 여수 아령투어(13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지역별로 관광객 편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가을 상품을 새로 개발했

다. 가을 상품은 남도문예 르네상스, 종교 순례, 박람회, 농산어촌 체험 등 4개 주제로 공모해 15개 여행사, 18개 상품을 선정했다.

주요 상품은 10월13일부터 11월12일까지 목포와 진도에서 열리는 국제수목 프레비엔날레, 10월26일부터 11월5일까지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7 국제농업박람회, 3개 사찰을 순례하는 삼사순례, 전남도농업박물관과 강진 푸소(FUSO) 체험을 연계한 농산어촌 체험 테마 1박2일 이상 상품 등이다. 푸소란 '필

링-업(Feeling-Up),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농촌 집에서 하루 밤 지내며 훈훈한 정과 감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성진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 방문을 바라는 많은 관광객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도록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겠다"며 "매력있는 으뜸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라"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기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촉구는 NBC 방송이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이를 전 보도에 이은 것이다. 미국의 거물 정치인이자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안보구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지난 1991년 모두 철수된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

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언급을 거론한 것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또한 "김정은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북 도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국과 다소간 무역을 끊는다면 미국에 해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변화하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차 제재) 등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한 중국 압박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북한 위기를 예로 들며,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질적 면에서 우위를 보라"며 "더욱 강한 국방과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각국 정상과 '북 도발' 대책 논의

마크롱 佛 대통령·턴불 호주 총리 등과 잇단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제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후 4시 7분부터 20여분간 이어진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이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핵실험 직후 마크롱 대통령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미국·영국·일본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통화하는 등 긴밀히 협조한 데 사의를 표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근본적 해결을 위해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결해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압박을 가해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국적으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50분부터 35분간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

했다. 또 "그간 내내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포기를 촉구했으나 이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절감할 강력하고 실제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의 등을 통해 그간 양국이 이룩한 공동체제를 토대로 동아시아 안정·변명과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며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프랑스는 이미 대통령실 성명을 통해 북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최고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안보리 협의 과정에도 적극 협력하겠

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추가 제재결의안이 채택되고 완전히 이행돼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며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프랑스는 이미 대통령실 성명을 통해 북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최고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안보리 협의 과정에도 적극 협력하겠

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추가 제재결의안이 채택되고 완전히 이행돼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며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프랑스는 이미 대통령실 성명을 통해 북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최고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안보리 협의 과정에도 적극 협력하겠

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추가 제재결의안이 채택되고 완전히 이행돼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며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프랑스는 이미 대통령실 성명을 통해 북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최고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안보리 협의 과정에도 적극 협력하겠

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추가 제재결의안이 채택되고 완전히 이행돼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며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프랑스는 이미 대통령실 성명을 통해 북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최고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안보리 협의 과정에도 적극 협력하겠

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추가 제재결의안이 채택되고 완전히 이행돼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며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프랑스는 이미 대통령실 성명을 통해 북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최고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안보리 협의 과정에도 적극 협력하겠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총괄 큐레이터 겸임 꼭 필요한가

김선정 대표이사, 이사장 권한대행까지 '1인 3역'

권한·역할 집중된 상황에서 견제·감시 부실 우려

11일 공식 발표된 2018 광주비엔날레 기본 구성안은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단일 감독 체제를 폐지하고 다수 큐레이터를 도입한 게 가장 특징이다. 특히 비엔날레 역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가 총괄큐레이터를 겸임하게 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지난 7월 부임한 김선정 대표이사는 예전 대표이사들보다 권한과 역할이 강화됐다. 상근 이사장제가 폐지되면서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등 상징적인 역할만 맡고

전문적인 경영과 행정 등을 아우르는 CEO 역할은 대표이사에게 모두 주어졌다. 김 대표는 현재 공식인 비엔날레 이사장 권한대행도 맡고 있다. 여기에 이변에 전시는 관장하는 총괄큐레이터까지 맡게 돼 김 대표이사는 무려 '1인 3역'을 하는 셈이다.

재단은 대표이사가 6개월간 공식상태로 예술감독 선임이 늦어짐에 따라 전시 효율성과 일정 추진에 차질을 가하기 위해 기획자 출신인 대표이사가 총괄큐레이터

를 맡는다고 밝혔다. 또 내년엔 다수의 큐레이터가 참여해 전시를 진행, 전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재단이 갖는 게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총괄큐레이터를 도입하고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표이사가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라는 자리에서도 '기획자 출신'이라는 강점을 발휘해 충분히 큐레이터들과의 소통과 조율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굳이 '총괄큐레이터'까지 맡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가 전시까지 총괄,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견제와 비판,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표이사의 총괄큐레이터 겸임 건은 지난 7월 열린 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져 표결까지 이어지는 등 논란이 됐다. 또 겸임문제와 관련한 정관도 변화사에 따라 각기 달리 해석되는 등 명쾌하지 않은 상태다.

예술인 A씨는 "명망있는 김선정씨를 예술감독이 아닌, 대표이사로 모셔왔을 때는 전시 기획자 출신의 문화예술 마인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경영과 행정, 위상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한 것"이라며 "이번 총괄큐레이터 겸임은 대표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전시까지 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기존 전시부에서 진행해온 예술감독 후보군을 포함해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참여 큐레이터를 선정하고 11월까지는 참여작가 리스트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한마음 공인중개사

-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집, 삼거리 코너(뒷집 작업중), 매매 4억3천만원
-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 무등산 총장사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앞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 ▶ 화순 도곡온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복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7년 8월 2일(수) ~ 2017년 9월 15일(금)
- 교육기간 :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원학기)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l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9월 15일(금)
- 교육기간 :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 수 강 료 : (원학기) 20만원(예금주 : 순천대평생교육원) 농협 643-01-007060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lifelong.sunche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